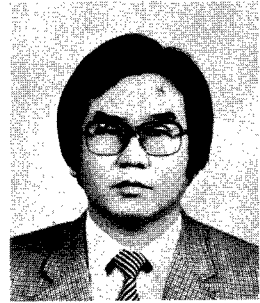


# “종계 생산성 향상에 성패 달려 있다”



박 준 영

한국부화협회장, 한협축산 대표

'90년도 양계산업은 외형적으로 가격면에서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극심한 인력난으로 경영난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였으며, UR에 대한 불안심리가 생산기반을 약화시키는 일면까지 보여주어 결국 생산감소로 인한 산물가격의 안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종계의 경우 8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생산성저하는 아직까지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 종계 1수당 평균 병아리 생산이 60~130수에 머무르고 있어 1수당 130~150수를 생산하는 외국에 비해 병아리 생산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외국의 병아리 생산비와 비교한다는 것은 문제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89년에 이미 종계가 과잉되어 '90년도 말복 이후에는 부화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매우 적었음에도 상대적으로 병아리가격은 예상보다 높은 선에서 거래가 되었음이 이를 잘 입증해주었다고 본다.

특히 '90년도에 예년과는 달리 육계가격에 상관없이 병아리 가격이 상승세를 보여 육계산업에 대한 높은 가격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여 입추열기가 지속되었다.

'90년도에는 닭고기 소비에 별 악재 없이 전반기를 보내는듯 싶었으나 7월에 난데없이 증금속

표 1. 품종별 G.P.S 입추현황

연도별 품종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88	'89	'90	'88	'89	'90	'88	'89	'90
하 바 드	6,000	6,000	6,000	3,000	5,200	( 6,000)	9,000	11,200	12,000
아바에이카	7,000	13,000	12,000	13,000	10,000	12,000	12,000	23,000	24,000
인디안리버	6,000		6월 6,370		6,000	12월 ( 6,370)	12,000	6,000	12,7740
로 스	3,000			3,000	6,000	12월 ( 6,000)	6,000	6,000	6,000
마 니 커 (베 데 트)	2,000	13,000	13,700 ( 6,000)		23,800	32,000 7,000	2,900	36,800	55,700 1,750
하이브로			7,140		6,000	12월 ( 7,500)	6,000	6,000	14,640
로 만		3,000	5,250		3,000	( 5,250)		6,000	10,500
코 브						3,500			3,500
합 계	24,000	35,000	50,460	19,000	60,000	85,620	43,000	95,000	140,830

함유에 대한 기사가 매스컴에 등장되어 한시적으로 급격한 소비둔화를 맞기도 하였다. 아울러 후반기들어 닭고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새로운 소비시장 개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G. P. S 현황은 표1에서 나타나듯이 '89년에 비해 18.2%가 증가세였고 '88년보다는 20.9%가 증가하였다.

육용종계에 있어서도 표2에서와 같이 '88년에 비해 37.7%가 증가를 보였고 '89년에 비해서는 32.7%가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91년의 P. S 증가율은 '90년에 비해 36.2%가 증가할 추세에 있다. 아울러 실용계 육계병아리 생산 잠재력도 30% 이상 초과공급될 것으로 보여진다.

'88년부터 '89년, '90년을 거치면서 G. P. S의 자율적인 조절이 결과적으로 병아리값 안정유지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음은 지금까지의 과정이 잘 입증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종계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의 현대화가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P. S 1수당 150마리의 병아리를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어야 하리라고 본다.

UR에 대한 국제경쟁력도 제일 먼저 종계의 생산성이 향상되어야 가능하다고 볼 때 우선 종계 1만수 사육하는데 필요한 시설자금이 2억여원에다 육성비까지 포함하면 3억여원이 투자되어야 하기

표 2. 육용종계 분양현황 및 91년 생산잠재량

연도별 월별	'88년	'89년	'90년	'91년
1	140,300	94,500	149,600	(351,000)
2	192,700	206,900	242,800	(548,000)
3	332,500	291,400	300,400	(549,000)
4	309,700	264,400	324,700	(501,000)
5	265,200	252,200	332,900	(585,000)
6	286,600	278,500	291,700	(434,000)
소 계	1,520,000	1,387,900	1,642,100	(2,968,000)
7	282,800	318,900	373,600	(475,000)
8	236,700	296,900	395,800	(476,000)
9	270,400	258,100	371,000	(485,000)
10	234,200	228,900	(410,000)	(347,000)
11	110,800	224,900	(370,000)	(273,000)
12	149,400	194,700	(300,000)	(240,000)
소 계	1,284,300	1,522,400	2,220,400	(2,296,000)
년 계	2,804,300	2,910,300	3,862,500	(5,264,000)

때문에 자체자금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많다.

또한 완전자동화 시설을 위한 계사건축이 가능하도록 600평 정도는 토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줘야 한다.

최근 2년간의 추세로 볼때 종계·부화업에 남아 있는 양계인은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 스스로 양계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은 마땅하다고 본다.

양계산물은 식생활개선으로 인하여 품질향상을 보다 철저히 해야한다. 지금과 같이 값이 저렴하다는 식의 소비유도는 오히려 소비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품질을 향상시키는 대전제는 시설에 대한 현대화다. 이것이 갖추어져야 종계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으며 종계가 향상되어야 양질의 병아리 생산이 가능해지고, 또한 육질개선에 필요한 품종개발이 아울러 이루어질 수 있다.

생산비를 절감시킨다는 차원에서 계열화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느껴 여러곳에서 계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자본이 투입되는 계열화사업에 자금력이 부족한 관계로 시설현대화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 상품화하는 과정까지 가기에는 역부족인 감이든다.

아직은 정착단계라 그렇다 치더라도 장차는 계열주체마다 특징있는 닭고기를 생산, 상품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것이 육계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핵심이요, 최대 관건이기도 하다.

종전에는 부화장, 사육, 사료, 관리, 도계, 유통이 저마다의 위치에서 한몫씩을 해왔으나 같은 비중에서 닭고기라는 특수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일괄체제를 상호 협력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대규모 유통회사가 판매조직을 가동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닭고기를 공급시켜나가는 방향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미국의 퍼듀사하면 엘로우치킨으로 유명하다. 저지방이면서 노란색조로 만들어진 닭고기는 10%정도 타 닭고기 보다 비싸도 소비자가 사먹는다는 것은 닭고기에 대한 고유의 품질 때문이다.

향후 2~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도 부분육 시장이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국내 여건상 부분육 시장체제가 미흡하여 통닭이나 절단육 상태로 유통되고 있으나 정육단계의 유통이 가능하게 하는 길은 시설현대화는 필수조건이고 사육환경(공기)까지 제고해야 할 만큼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에 부합되는 종계를 생산하고 나아가 병아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종계부화업자들의 양계업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제부터는 생산조절이나 가격유지에만 골몰하는 식의 단체운영 보다는 생산에 대한 정보는 제 공차원에서 해결하고 각종 제도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에 분주해야 하리라고 본다.

아무리 이웃 일본이 닭고기 대 수출국이라 심심하면 수출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좀더 냉정히 우리나라 육계업의 형편을 판단할 때이다.

일본은 닭고기를 회로 먹을만큼 부분육유통이 발전한 나라다. 위생적인 수준에서 다시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고 종계를 비롯한 부화, 육계, 유통이 한마음으로 우리나라 육계산업이 수준향상을 꾀해 국제경쟁력을 하루 빨리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리라고 본다.